

삶과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성찰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http://sophia.khu.ac.kr/>



철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사유하는 즐거움

철학과는 본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 정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979년 국민윤리학과로 출발하여 1987년도에 철학과로 개편되었고 석사과정은 83년, 박사과정은 9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철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철학을 하며 사유한다는 것의 즐거움을 알도록 해주며, 인간과 세계의 존재 및 그 본질에 대한 통찰력,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철학자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학과의 교육 목표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각종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도자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철학과에서는 첫째,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력과 어학 능력을 습득하며, 둘째,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사상을 비교·연구하고, 셋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 함양을 도모합니다. 철학과가 바라는 인재상은 철학과 문학, 사학 등의 인문학 상호 간의 긴밀한 학제적 교류 및 소통을 통한 포괄적 인문학적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 사상과 철학의 한계를 넘나들며 사유하다

철학과만의 특징을 들라면 동·서양 철학을 다양하게 넘나들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고대철학부터 시작하여 헬레니즘 철학, 종교철학, 언어철학, 심리철학, 희랍고전철학, 프랑스철학, 과학철학, 독일철학, 한국철학, 노장철학, 한의철학, 불교철학, 윤리학, 송명철학, 중국철학, 정치철학, 삶과 죽음의 철학, 예술철학, 형이상학, 논리학, 현상학, 인식론 등 거의 모든 철학의 분야를 통관하여 두루 세상을 바라보며 사유할 수 있습니다.

동양철학의 기초, 서양철학의 기초, 논리와 사고, 이야기와 철학 등 철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철학을 접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문학 트랙 과정, 철학-사학 트랙 과정을 운영합니다.

문과대학공동강의 수업을 통해 인문학 전반을 직관적이며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사유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과진로탐색 수업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서의 인문학의 의의와 가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인문학도로서 이 사회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학술답사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경희대 철학과는 정기적으로 국내 학술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문화체험 및 비교사적 안목을 제고하며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숨결을 느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년제로(2년에 1번) 필리아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선후배와 교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학술, 친목 도모를 타 대학 학부생 분들과도 함께하여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행사 규모를 축소시켜 컨퍼런스의 내실을 다지고, 교내 구성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소피아컨퍼런스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로키움을 통해 교내 전임교원이나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철학과에는 분석철학회, 동양철학회, 사회철학회, 예술철학회, 현대철학회, 정치철학회, 칸트학회, 윤리학회 등 다양한 학회와 시너지(영상제작동아리), 고백(연극동아리), Amistad11(축구동아리), 온새미로(기타동아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철학과 진출 분야 및 유명 선배

철학과 졸업생은 창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기업 취업, 공무원, 공사, 대학원 진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공인회계사(CPA), 외국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취업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회, 법원, 국정원, 여성가족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기업, 공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서울교통공사로 나아갔으며, 금융, 보험업의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은행, 한화생명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ROTC 학군장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거나 CPA(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하며, 교육서비스업에서는 EBS교육방송, 지역아동센터, 학원, 교과서 편집부, 교수, 고등학교 교사, 대학 행정부서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언론기관은 SBS, EBS, CBS, KBS, 매일경제신문, 한국일보, 부산방송국, 파이낸

셜뉴스 등 다양하게 진출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서울 동작구 갑에 2016년, 2020년 당선된 김병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철학과에 입학하려면

철학과는 1) 수시모집(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우수자전형), 2) 정시모집(수능위주전형, 고른기회전형) 등을 통해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수능 성적 등을 고려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가 있을 경우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철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려면 얼마나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경희대에서 철학과를 전공하는 길에는 크게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 융합트랙 과정이 있습니다. 총 졸업학점은 130점이며 단일전공은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5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전공은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부전공은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일전공, 다전공은 졸업논문이 필수입니다.

융합트랙과정의 경우 철학-사학 트랙 과정의 경우 철학과 과목 45학점, 사학과 과목 24학점 이수, 철학-문학 트랙 과정의 경우 철학과 과목 45학점, 국어국문학과 12학점, 영어영문학과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